

2020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2020. 1. 7.(화) / 등록금심의위원회

□ 회의 개요

- 일시: 2020. 1. 7.(화) 10:00~10:50
- 장소: 본관 3층 대회의실
- 참석자: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, 7명 참석
 - 당연직: 교학처장(위원장), 총무과장
 - 위촉직: 학생대표 3명, 학부모 1명, 전문가 1명
- 불참자 : 교학제2부처장
 - ※ 배석: 총무과 담당주무관

□ 회의 안건

-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(전학년도 대비 동결안)

□ 회의 결과

- 전학년도 대비 동결안 최종 가결(재적위원 8명 중, 참석위원 7명 전원 동의)

□ 주요 회의 내용

- (위원장) 재적위원 6명이 참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(예산 담당 사무관) 공석으로 담당 주무관이 진행하기로 함. [개회 시각 10:15]
 - 학생 위원 1명은 회의 중간에 참석함.
- (담당주무관) 위원소개와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고하고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.
- (위원장) 보고 받은 책정안에 대하여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.
- (○○○위원) 학교 재정여건 및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부담증가로 등록금 인상요인이 존재하는 상황과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설명.

- (위원장) 자체수입금 사업비 감소 대비 국가지원금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물음.
- (○○○위원) 2019학년도에도 국가지원금은 전년 대비 별관공사비 71억을 제외하고도 82억여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, 재정당국에서 반영해주지 않는 소소한 사업비는 등록금 안에서 충당이 되어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반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함.
- (위원장) 등록금 인상은 학부모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임.
- (○○○위원) 국가지원금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우리학교 1인당 교육비 지원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. 등록금이 동결되는 만큼 2021학년도 국가지원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.
- (위원장)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 학부모위원의 의견을 물음.
- (○○○위원) 학부모 입장에서 등록금 동결은 감사함.
- (위원장)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 전문가위원의 의견을 물음.
- (○○○위원) 학생이 아닌 외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등록금 동결이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 등록금 동결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, 동결이 되더라도 학교가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함. 그것이 어렵다면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교육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.
- (○○○위원) 2018학년도에 등록금이 1.3% 인상되었지만, 학생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느끼지 못했음. 장기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고,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서는 감사한 입장임.
- (○○○위원) 우리학교는 재학생 규모가 작아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수입규모가 크지 않음. 2018년도에 1.3% 인상을 했지만 등록금수입은 총 5,000만원 증가했음. 적은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소소하게 필요한 원에는 많은 도움이 됨을 설명함. 2020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적립금

감소 등 학교 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이지만 학생에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최대한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함.

- (○○○위원) 매년 사업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, 2020학년도 12%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요청.
- (○○○위원) 사업부서의 예산은 일괄삭감 후, 신규 요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과정에 대해 설명함.
- (○○○위원) 학생입장에서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은 감사한 일이지만 사업비가 줄면 학생지원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지원 확대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동반 되어야 하는 부분은 공감함.
- (○○○위원) 학생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움.
- (○○○위원) 원 교학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최대한 반영할 예정임.
- (위원장)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, 교학협의회를 통해 학생과 학교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교학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.
- (위원장) 토론을 마친 후, 위원 모두가 투표한 결과 참석위원 7명(재적위원 8명) 중 7명 전원이 동의하여 위원장은 원안 가결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함.

[폐회 시각 10:50]